

한국건강심리학회
since 1994

건강한 삶! 행복한 마음!

Newsletter
2012. 02. 29.

제1호 격월 발행

<http://www.healthpsy.or.kr>



[명선도 일출, 사진 이철호]

발행인 이민규 | 편집인 이철호 | 전화 (055)762-2080 | 이메일 khpa1994@hanmail.net
주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임상·건강심리연구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신체 및 심리건강에 대한 심리·생물·사회적 측면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과 관련 분야 연구자들 그리고 건강관리(health care) 전문가들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94년 한국심리학회 제9분과 학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건강과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영역에 심리학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학회 활동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실천적 기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학회는 건강심리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심리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품격의 건강심리전문가 양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학회는 전문가들의 건강심리학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의 장을 연4회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술의 장에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건강심리학의 개최(2004년 개최, 2013년 예정)등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학회는 전문가들의 건강심리학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건강'로 출판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연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의 KCI인용지수(한국학술지인용색인)도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인용되는 전문학술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넷째, 건강심리전문가들이 건강증진센터, 스트레스관리센터, 중독예방 및 치유 센터, 통합의학, 재활의학, 가정의학, 정신의학, 영양학, 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모든 건강심리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학회는 학술대회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한국유방암환우회, 대한소아당뇨인협회,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등 만성적인 신체적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우리 학회는 회원들이 신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실천적 기여를 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한국건강심리학회장 이민규

제10대 건강심리학회 임원

□ 제10대 건강심리학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건강심리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이사님들입니다. 축하해주시고 학회 발전을 위한 어떤 의견이라도 우리 임원들에게 주십시오. 건강심리학회 회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임원님들이 될 것입니다(연락처는 홈페이지 참고).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이민규	경상대학교
수석부회장	현명호	중앙대학교
국내협력부회장	서경현	삼육대학교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총무이사	최성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준호	순천향대병원
홍보이사	이철호	법무부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지선	부산카톨릭대학교
재무이사	장문선	경북대학교
상별 및 윤리위원장	박경	서울여자대학교
편집위원장	서경현	삼육대학교
수련위원장	박준호	순천향대병원
	고영건	고려대학교
	권선중	침례신학대학교
	김완석	상담심리학과
	김청송	아주대학교
	김청송	경기대학교
선임이사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유제민	강남대학교
	이형초	이형초심리상담센터
	정경미	연세대학교
	최미례	육군사관학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감사	김정호	덕성여자대학교
고문	손정락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서은수	경상대학교병원
사무(홍보)간사	이경석	경상대학교
편집간사	김태민	삼육대학교
수련간사	이아름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육간사	최성은	순천향대학교병원
재무간사	최혜정	경북대학교
학술간사	신재은	건국대학교병원
총무간사	김혜민	부산메리놀병원

2012년 학술대회 일정

■ 춘계학술대회

- 일시: 3월 30일(금) ~ 3월 31일(토)
- 장소: 경상대학교(진주)

■ 하계학술대회

- 일시: 6월 15일(금) ~ 6월 16일(토)
- 장소: 경북대학교(대구)

■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 일시: 8월 23-25일
- 장소: 미정

■ 동계학술대회

- 일시: 12월 7일-8일
- 장소: 삼육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서울)

[학술공지] 건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신청 및 논문 초록 제출 안내

- (1)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신청 기간: 2012년 2월 29일(수)까지 아래의 표에 내용을 기입하여 학술간사 신재은(rheaii@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2) 구술 및 포스터 발표 논문 초록 제출 기간: 2012년 3월 19일(월)까지
 - 발표 신청이 완료되신 분께서는 논문 초록 원고를 학술간사 신재은(rheaii@naver.com)에게 기간 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 논문 초록을 제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제공된 제출 양식에 따라 용지 여백과 글자 크기 등의 설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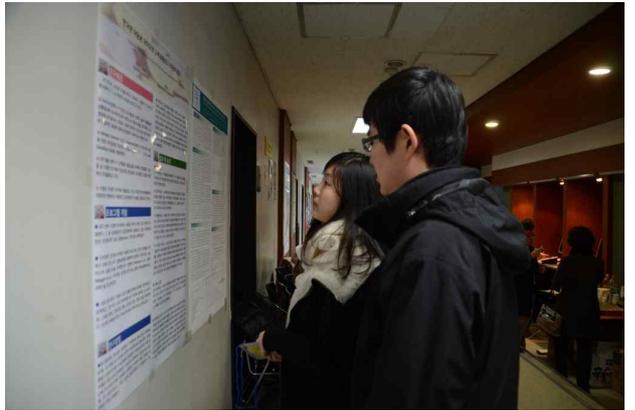
2011 통계학술대회 소개

‘통증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란 주제로 2011년 통계학술대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만성적인 통증의 고통을 겪는 환우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님과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 한국심리학회 총회에서는 지난 학회 활동보고, 감사보고, 김정호회장 이임사, 신임 이민규회장 취임사, 신임이사소개와 사업계획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건강심리학회의 발전을 위해 2년간 노력해 주신 김정호회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와 회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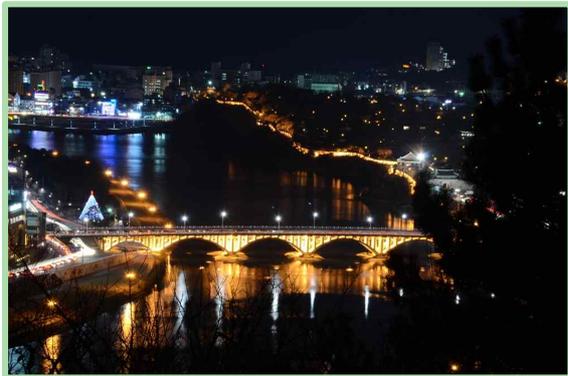
준계 학술대회는 어디서??

- 국립 경상대학교 임상/건강심리 연구실 탐방 -

◆ 국립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이자 축석루와 유등축제로 유명한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립경상대학교의 심리학과는 1983년 설립되어 2012년 현재 26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리학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 지식의 실제적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임상·상담심리 전공, 산업 및 조직심리 전공, 인간요인 전공이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건강심리학회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2005년, 2007년, 2009년에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다가오는 3월에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심리학회와의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건강심리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 축석루야경 ☆

◆ 연구실 소개 (꽃보다 임상/건강심리?)

멋진 삶이여 .. 저희는 임상/건강심리 연구실 21기 새내기 (3월 입학)들입니다. 임상/건강 심리연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애매하죠잉~! 지금부터 저희가 정해드립니다잉.

연구실 스타디는 방학에도 돌아갑니다. 부지런한 건 기본, 쉬는 거 필요 없데요! 기초통계, 고급통계, 정신병리, 거기에 전공 세미나(journal club), 영어원서 강독도 한데요, 흑-흑, 학기 중 2주에 한 번씩 전국 기차역을 돌아다니며 세미나수업을 예정이라네요, 참 재밌겠죠잉~, 저희 교수님께서 건강심리학회 회장님을 맡으..("우와~"),

(이제는 진지모드!!!)

"마부작침(磨斧作針)" 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정신으로 자신의 학문과 소양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실험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지내는 실험실 이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품었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또한 서로 함께 생활하며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을 따라 더딘 걸음이라도 다부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 연구실 활동

Bona vita

vita, bona vita
naturalis nova
credibilis erudita vita
Lucete, Lucete, Ya~

멋진 삶이여.

삶이여, 멋진 삶이여
자연스럽게, 창의롭게,
신뢰로운, 학문의 길이여.
밝게 빛나라, 밝게 빛나라

※연구실 구호

연구이외 다양한 임상경험과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알코올상담센터, 병원, 진주교도소, 통영구치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긴급지원센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개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현장에 대한 심리적 개입으로 진주교도소 일반 수용자와 정신과적인 문제를 지닌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영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프로그램(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현장에 대한 심리적 개입으로 진주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와 연계하여 청소년 재비행 위험성 평가와 함께 지역 청소년의 선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선배님들은 법무부 교도소, 알코올 상담센터, 해바라기아동상담센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에서 건강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범죄심리사 등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절, 교육, 예절의 천년고도에 위치한 임상/건강심리 연구실로 놀러오세요!!!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 우리 실험실은요~



우리 속담이나 고사성어에 숨겨진 심리학의 다빈치코드를 찾아라!

삼인성호(三人成虎)란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 고사유래: 전국 시대 위(魏)나라 방총이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 한단으로 인질이 되어 가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왕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멀어질까 하여 혜왕을 만나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왕께서는 믿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믿나?"

"그럼 두 사람이 와서 같은 말을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반신반의 하겠지"

"이번에 세 사람이 와서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믿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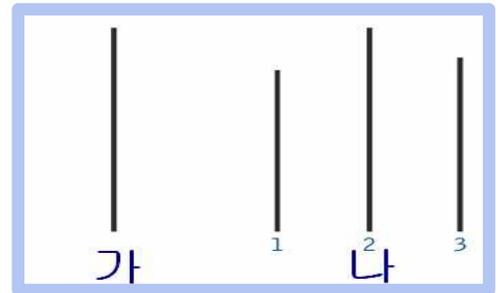
방총은 말했다. "시장에는 분명히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됩니다. 저는 지금 멀리 한단으로 떠납니다. 제가 떠난 후 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셋만은 아닐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을 테니 걱정마오." 방총이 출발하고 아직 한단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의 걱정대로 참소가 들어왔다. 이에 혜황은 약속과는 달리 방총을 의심하게 되었다.

몇 년 뒤 태자와 함께 인질에서 풀려 귀국했지만 방총은 그가 예견한 대로 왕을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왕이 방공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방공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출처: 전국책(戰國策)

삼인성호는 모함이나 유언비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도 이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이를 믿는 경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애시(Asch, 1956)의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7명을 의자에 나란히 앉힌 후에 길이가 서로 다른 세 선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세 선 가운데 가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을 찾으라고 하였다. 실험에서 나란히 앉은 7명중 한명만이 피험자였고 나머지는 지시를 받은 실험보조자들이었다.

혼자 판단한 조건에서는 99%의 피험자들이 정답인 2번 선분을 골랐으나 집단 속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67%만이 정답을 골랐고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좇아 틀린 대답을 하였다.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한 유명한 실험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정답이 명백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판단에 따라 정답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보임을 증명하였고 집단이 만장일치를 보이지 않으면 동조압력이 미약해짐을 밝힌 추가연구도 있습니다.

※ 동조는 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관점에 맞게끔 자기 자신의 가치관, 태도 등을 바꾸는 정도를 말합니다.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잠재의식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집단의 압력을 통해서 역시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 일치감, 유대감, 지위, 사전의 약속들이나 공공의 의견 모두 한 개인이 집단에게 비추는 동조성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우울증, 모든 국민 내년부터 정기검진

성인은 건강보험 검진에 포함, 어린이·청소년은 우편 검사... 인터넷중독·자살징후도 체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하고, 성인은 1~2년마다 받는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특정 연령을 선정해 해당 가정에 정신건강 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 검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 연령 3·7·18·30·45·60세 국민이 살고 있는 모든 집에 검진표를 보내고, 회수한 검진표를 분석해 정신질환 가능성과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일정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검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진표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청·장·노년층은 우편 검사와 함께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유아는 발달·지적·언어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초·중·고생은 인터넷중독·불안장애·우울증, 18세~20대 초반은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증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직장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최근 자살이 늘고 있는 노년층은 우울증과 자살 징후 등을 주로 검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2.02.20 기사 중에서



가십은 사회와 개인에게 유익

가십은 잡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로 치부된다. 하지만 가십이 사회의 건강과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룩 윌러 박사의 연구 초점은 친사회적 가십, 믿을 수 없고 부정직한 인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지닌 가십에 맞춰졌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51명의 참가자가 두 사람이 컴퓨터로 협력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게 했다. 한 플레이어가 포인트를 혼자 쌓아두는 이기적 행동을 보이자 참가자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를 지적하는 가십 쪽지를 다음 번 플레이어에게 전달했다. 심장이 뛰는 속도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윌러 박사는 "가십 쪽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참가자들의 부정적 기분과 좌절감을 완화시켰다"며 "가십은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는 11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타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기적 행동에 나쁜 감정을 느끼며 가십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99명의 참가자가 협력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관찰자가 있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다음 번 파트너에게 가십으로 알릴지 모른다고 믿을 경우 협력을 더 많이 하고 이기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십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협은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들었다.

스포츠한국 2012.02.05기사 중에서

자격증시대

이제 건강심리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자.

2012년부터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는 ‘건강심리사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의 마음과 신체건강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심리사라 여겨집니다. 우리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건강심리사는 학부졸업생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곧 공지할 것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건강심리학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홍보해 주십시오.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

- 0 안내: 매년 3월 1주차
- 0 등록: 매년 3월 4주차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 공동교육

- 0 일시: 2월 10일(금) ~ 11(토)
- 0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123호, 124호

■ 제6차 건강심리전문가 필기시험

- 0 일시: 2월 24일(금)
- 0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123호, 124호

■ 제13차 건강심리전문가 면접

- 0 일시: 2월 25일(토)
- 0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123호, 124호



[2012년 건강심리전문가 면접장면]



■ 제6차 건강심리전문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1	이희영	덕성여자대학교
2	이지은	덕성여자대학교
3	손선희	베네라이프 암요양병원
4	이서정	중앙대학교
5	이수진	덕성여자대학교
6	유승연	일산병원
7	고아름	덕성여자대학교
8	김동경	덕성여자대학교
9	김주희	강북삼성병원
10	고은미	덕성여자대학교
11	구해경	중앙대학교
12	강민지	덕성여자대학교
13	김상대	덕성여자대학교
14	김경아	성균관대학교
15	김미정	삼성전자 열린상담센터
16	이연경	덕성여대 대학원
17	박수진	덕성여자대학교
18	윤경희	덕성여자대학교
19	임다정	덕성여대 대학원
20	안정미	덕성여자대학교
21	지은진	삼성중공업
22	권세영	덕성여자대학교

■ 제13차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합격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1	송승훈	삼성전기 나누리센터
2	이철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3	지은진	삼성중공업
4	최성진	부산 메리놀병원
5	육영숙	성신여자대학교 체육학과
6	장문선	경북대학교
7	임숙희	충남대학교
8	김세진	충남대학교
9	박경민	법무부 진주교도소
10	이희영	한별정신과의원
11	이서정	중앙대학교
12	김경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13	조현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14	심은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15	고진경	한국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회원 동정

■ 김교현 회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중인 김교현 회원님께서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박지선 회원

박지선 학술이사님께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상담심리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박경 회원

상별 및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여대 박경 회원님의 아드님의 결혼(3월 10일)을 축하드립니다.

■ 김정호 회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김정호 회원님의 부친께서 지난 1월 별세하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경미 회원

정경미 선임이사(연세대학교)께서 2011년 11월 26일 세계당뇨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소아당뇨가족을 위한 공개 학술제와 후원의 밤에서 「소아당뇨 환자의 심리적 특성 및 효과적인 관리」란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 건강심리기자모집

건강심리학회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건강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건강심리소식지에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할 것입니다. 건강심리에 관심이 있고 건강심리소식지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학교소개 원고 모집

건강심리지 다음호(2호)에 게재할 학교소개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학교와 학과를 건강심리학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주요활동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 회원동정소식 원고 모집

건강심리지 다음호(2호)에 게재할 회원님들의 동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동정도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 보내실곳

chull357@hanmail.net

chijilove@korea.kr

○ 편집실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건강연구실



■ 원고모집

건강심리소식지(건강한 삶 행복한 마음)에서 다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시, 소설, 수필, 사진 등 아무거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심리학회원과 가족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 원고 보내실곳

chull357@hanmail.net

chijilove@korea.kr

○ 편집실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건강연구실

■ 그림 찾기(다른곳)

두 사진에서 차이가 나는 곳을 찾아주세요.

